

---

## 신조(creed)

---

### [신조 10 조]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sacrament)이란 뜻으로 구별된 예식이란 뜻이다. 신학자 어거스틴(Augustine)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증표(sign)라고 했다.

성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 A. 세례

1. 세례는 물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으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 1) 죄 씻음, 즉 죄사함의 표시
- 2)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
- 3)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새로운 피조물)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

2.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나?

- 1)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
- 2) 그들의 자녀(유아세례)

## \* 참고: 세례의 방법

- 1) 물을 뿌리는 것(sprinkling)
- 2) 물에 잠그는 것(immersion)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 방법이 아니라 세례의 내적 의미를 붙잡는 것이다.

## B. 성찬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식으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 1)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다.
- 2)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유익을 의미한다.
- 3) 주를 더욱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 \* 참고: 성찬에 대한 이해의 차이

1) 화체설(transubstantiation):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설로 카톨릭 교회의 주장이다.

2) 공재설(consubstantiation):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함께 있고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다는 설로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3) 기념설(memorialism):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식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츠빙글리가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4) 영적 임재설(spiritual presence):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성찬식에 임재하신다는 주장으로 칼빈이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 C. 성례의 유익

- 1)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 2)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 3)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